

특 집 논 문

『조선지광』에 투영된
사회주의자의 국제정세 인식*

조 형 열**

- | | |
|--|-------------------------|
| 1. 머리말 | 3. 대공황의 영향과 중국혁명에 대한 열망 |
| 2. 국제적 각축 속 중국 국민혁명에 대한 기대 (1925~1928) | (1929~1932)
4.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잡지 『조선지광』의 국제정세 기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조선지광』은 1922년 11월 창간되었고 1932년 3월호로 종간할 때까지 모두 101호가 발행되었다.¹⁾ 『조선지광』은 신문 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 원고 검열 없이 제작 후 사후 검열만을 받으며 시사와 정치문제를 다룰 수 있었으며,²⁾ 장도빈이 발행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조교수.

1) 장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대동문화연구』 1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229쪽.

2) 장신, 「『주보 조선지광』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441쪽.

권을 획득했지만 3호까지 나온 뒤 김동혁이 발행인이 되어 1924년 5월의 4호부터 주간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압수와 휴간을 반복하다가, 주보라는 이름을 떼고 공식적인 월간지로의 전환은 1926년 11월의 61호였으나, 8월의 58호부터 월간의 형태로 전환되었다.³⁾ 대부분의 잡지가 시사문제를 다룰 수 없었고 수명이 짧았던 것에 비하면, 『조선지광』은 1920년대 중후반, 193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사상 지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잡지이다.

게다가 『조선지광』은 ‘사회주의 잡지’였다.⁴⁾ 1928년 7월의 79호까지는 고려공산청년회와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이 기관지로 활용하였다.⁵⁾ 그러나 조공 탄압의 결과 1928년 8월의 80호부터는 『조선지광』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⁶⁾ 이렇듯 이 잡지를 일관되게 사회주의 매체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합법 지면을 통해 발표된 사회주의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발행주체와 필자의 변동까지 유심히 살피며 잡지를 분석한다면 사회주의 계열의 내면의 문제의식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선지광』은 여러 가지 시사 의제를 다루었지만,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문종이 36개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 장신, 「『주보 조선지광』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456쪽.

4) 김문종은 『조선지광』 등 10종의 ‘사회주의 잡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잡지의 발행주체와 다수 필진이 과거와 현재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경우, 둘째, 잡지가 담은 내용이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셋째, 당시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 아군이라고 평가하는 경우, 넷째,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공산당이 기관지로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비합법적 출판물이 아닌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여섯째, 문예물을 중심으로 카프 등이 발행한 사회주의 문예운동 잡지가 아닌 경우 등이다. 김문종,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61쪽.

5) 장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238~240쪽.

6) 장신은 이 시기를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는 분명했는데 아젠다를 주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장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261쪽.

전체 기사 수는 798개이고 각종 잡보·문예 등을 제외한 논설 기사 수는 293개였다. 이 가운데 국제문제는 1920년대 후반기까지 36개로 12%, 1930년대 전반기에 27개로 47%를 차지했다.⁷⁾ 그러나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조선지광』을 모두 모아서 주보와 월간으로 발행된 46개호를 검토한 결과,⁸⁾ 본문의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기사는 모두 100개를 상회하였으며 시평 등의 형태로 꾸준히 수록되었다.

신문·잡지의 국제정세 기사는 일제식민지시기 지식인·운동가의 세계관 및 운동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만주사변 이후 국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1930년대 전반 이후를 다루었으며,⁹⁾ 1920년대 중후반과 1930년대 초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로 민족주의 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¹⁰⁾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세계를 어떠한 관점

7)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79쪽, 88쪽.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이 두 시기에 각각 43%, 24%, 국내문제가 19%, 8%인 것과 비교하면 꾸준히, 그리고 시일이 지날수록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8) 실물을 검토한 호수는 참고문헌 목록을 참조할 것. 주보는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를, 월간 이후는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과 일본 와세다대학의 소장 자료 등을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수집한 것을 주로 활용하였다.

9) 임경석, 「세계대공황기 사회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정세 인식」,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이태훈, 「193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국제정세 인식과 파시즘 논의」, 『역사문제연구』 12, 역사문제연구소, 2008; 홍종욱,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정세 인식: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9; 윤덕영,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 계열의 비판」,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이수일, 「1930년대 전반 '성대그룹'의 반관학 이념과 사회운동론」,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한종민, 「『조선중앙일보』의 식민지 현실인식과 세계정세인식」, 『지역과 역사』 41, 부경역사연구소, 2017; 윤효정,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 『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2018; 김명구, 「안재홍의 1920년대 구미 정세 인식」, 『대구사학』 131, 대구사학회, 2018; 김명구, 「안재홍의 1930년대 초·중반 파시즘 인식과 사회주의자(서강백)의 비판」, 『한국근현대사연구』 91, 한국근현대사학회, 2019; 김명구, 「1930년대 초중반 사회주의 지식인의 파시즘 인식: 독일 나치당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92, 고려사학회, 2023; 김명구, 「1930년대 초중반 국내 사회주의 지식인의 독일의 대외정책과 유럽정세 인식」, 『대구사학』 153, 대구사학회, 2023.

에서 무엇을 소재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조선혁명의 가능성을 세계사의 변동 가운데 어떻게 배치하고 있었는지 1920년대부터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데 미진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지광』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분석하여 『조선지광』의 성격을 조명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사회주의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일단 이 글에서는 『조선지광』의 발행기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눠 검토하고자 한다. 장신은 월간 시기 『조선지광』을 편집 방향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926년 11월부터 1927년 8월까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도 활동기(제1기), 1927년 9월부터 1928년 7월까지 사회주의운동과 계속 연관을 맺으며 더 많은 독자를 획득하고자 했던 지면의 대중화 모색기(제2기), 조공 탄압 사건 이후 실질적인 기획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중단된 시기(제3기) 등이었다.¹¹⁾ 월간 기간의 전반적 운영으로 놓고 본다면 적절한 시기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국제정세 기사와 사회주의운동의 관련을 따져 보기 위해서는 후보 발행기까지 포함하여 실물이 남아있는 1925년부터 고려공산청년회와 조공의 기관지로 활용되었던 1928년까지를 한 시기로(전반기), 이후 1932년 중간 때까지를 한 시기(후반기)로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1929년 이후 시점은 코민테른 6차대회와 대공황의 파급 등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체감하는 국제정세가 크게 바뀌는 분기점이기도 하였다.

국제정세 기사 분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변화된 관점을 보는 방법이

10) 류시현, 「1910~20년대 일본유학 출신 지식인의 국제정세 및 일본 인식」, 『한국사학보』 7, 고려사학회, 1999; 전상숙,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족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상도, 「중국 제1차 국공합작 및 국민혁명에 대한 한국인의 반향」, 『사학연구』 85, 한국사학회, 2007; 윤덕영, 「1926년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 인식과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모색에 대한 재해석」, 『동방학지』 1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이기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 인식: 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17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주효뢰,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 소명출판, 2020.

11) 장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241~251쪽.

라기보다 변화되는 사안에 대한 해당 시기의 관점을 살피는 가운데, 국제정세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어떠한 식으로 유지·변경되는지 검토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통틀어 『조선지광』이 관철하고 있는 기본 관점은 제국주의 세력의 대립과 분열에 대한 기대, 약소민족해방운동을 비롯한 전세계 피압박대중의 투쟁에 대한 희망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열강 사이에 조성된 ‘허구적 평화’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으로 중국 국민혁명을 들고 소련의 기여 및 농노계급의 역량을 소개하고자 하였으며, 대공황기에 돌입하는 후반기에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체제·진영간 대립 구도를 설정하면서 중국혁명과 소련의 방어를 중요시하는 관점이 확립되어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 글은 국제정세 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잡지의 성격을 살펴보는 방편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필진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후반기 상황은 『조선지광』의 정체성 변화와 연관되었다는 판단 아래, 후반기의 필진과 논조의 변동을 『조선지광』의 지속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조선지광사가 새로 발간한 『신계단』으로 이어졌다는 관점에서 연속선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¹²⁾ 따라서 ‘사회주의적 색채’만 남았다고 평가된 『조선지광』의 막바지도 국제적으로는 대공황의 영향과 코민테른 노선의 전환, 국내적으로는 신간회의 해소 등 사회주의자의 당대적 고민이 이어졌던 시기로, 『조선지광』의 종간과 『신계단』의 창간을 사회주의운동 전개과정의 한 국면과의 관련성 가운데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조선지광』은 실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1호까지 제작되었다. 종간 이후 조선지광사는 유진회를 발행인으로 하여 『신계단』을 펴냈다(『조선일보』 1932년 3월 23일, 「광고: 전투적 전통에 빛나는 조선지광 3월호」; 『조선일보』 1932년 3월 25일, 「신간 소개」; 『동아일보』 1932년 8월 11일, 「『신계단』 발행」; 『신계단』 1, 1932. 10, 「편집 후기」). 한편 『신계단』의 국제정세 기사는 〈부표 1〉로 정리했다.

2. 국제적 각축 속 중국 국민혁명에 대한 기대(1925~1928)

1) 조선공산당원이 다수 참여한 국제관계 필진

『조선지광』 가운데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국제정세 기사는 1925년 10월 17일에 발행된 22호에 수록되었다. 주보는 전체 지면이 12면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마지막 면은 광고였는데도 3~4면을 국제정세에 할애하였다. 『조선지광』이 사회주의 매체가 되고 초기부터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아래 <표 1>은 주보 시기를 포함하여 1928년까지 『조선지광』에 실린 국제정세 기사 50개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을 통해서 『조선지광』의 국제정세 분석을 어떤 사람들이 했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표 1> 전반기(1925~1928년) 『조선지광』의 국제정세 기사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22	1925.10.17		고민에 泣하는 독일의 정세
23	1925.10.24		중국의 동란과 중국인의 각성
			중국의 관세회의에 대한 일고찰
24	1925.10.31		로카르노회의의 평화보장
			(시론일숙) 구주보장조약, 중국의 동란
임시	1925.11.16		중국의 동란과 그 형세
			모록코와 구주의 관계
			(시사평단) 또 군축회의, 중국동란, 관세회의 전도, 假像敵 문제, 新加坡해군 근거지 문제
			영국의 노동조합
27	1925.11.21		영국의 동점정책
			(시사평단) 관세자주권 승인, 중국의 동란, 시리아 亂, 잠항정 전폐운동, 반동인가? 역전인가?
			영국의 조합운동(속)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28	1925.11.28		중국의 관세자주와 일본
			(시사평단) 奉張의 몰락?
			독일 조합운동(전호 속)
62	1926.12	만오생 (김동혁)	(시평) 범아세아연맹의 가능성, 중국의 남북분열, 대영제국의 분열
63	1927.1	김준연	일본무산계급의 제정당
64	1927.2	이인걸	중국 무산계급과 그 운동의 특질
65	1927.3	이인걸	중국 무산계급과 그 운동의 특질(속)
		김영식	계국주의와 근대자본주의
66	1927.4	수양산인 (양명)	중국국민당의 조직 및 인물
		조동식	간떡의 사상과 '샷디아 그라하데'
		만오생	(시평) 갱생하는 노중국, 로영관계의 급식
67	1927.5	김준연	금번 일본정변의 의의
		낙동강인 초 (양명)	중국 내에 在한 열강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
			육호실: 열국의 군비 비교
68	1927.6	만오생, 擎山生 (김명식)	(시평) 일영동맹설과 영국의 현상
69	1927.7	양명	국민당 좌우파와 중국혁명
		水山生 抄	손문과 삼민주의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
		만오생	(시평) 불안한 국제정국, 중국문제 잡관, 일본의 對中策
70	1927.8	김준연	일본의 극동정책
		최원순	극동에 몰려오는 삼대 세력
		양명	중국문제 산평
71	1927.9	김영식	군축회의 결렬의 의의
		만오생	(시사평단) 삼국 군축회의의 결렬, 중국문제 잡관
72	1927.10	만오생	(시사평단) 일본의 부현위원의 선거, 중국문제 잡관
		수산생 초	손문과 삼민주의(속)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73	1927.11	김영식	현하의 국제 정정과 전쟁의 위기
		곽종렬	일본 각 정당 정책에 대한 고찰
75	1928.1	김동혁	1928년과 세계정국
		곽종렬	전전의 영제국주의와 인도
		만오생	(시사평단) 열국의 군비확장 경향
76	1928.2	곽종렬 抄	전전의 영제국주의와 인도
77	1928.3·4	김선필	인도는 어대로 가나
		만오생	(시사평단) 일본의 총선거와 정계, 영령인도의 자치문제
78	1928.5	만오생	(시사평단) 일본정계 잡관
79	1928.7	만오생	(시사평단) 중국문제 잡관, 장작림의 死와 동삼성의 장래, 부전조약?
81	1928.11·12	南北鐵	중국 오원제 정부 조직에 대하여
		S생	중국문제의 장래, 영불국 해군 협정의 내용, 미국 대통령 선거전

먼저 필진을 검토해보자. 주보 시기에는 해당 기사의 필자 이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편집진 전체가 논지를 확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간 시기에 국제정세 기사를 가장 많이 쓴 필자는 시평 코너를 담당한 만오생 김동혁이었다. 그는 조선지광사의 편집과 경영을 책임졌던 사회주의적 경향의 인물이었으며,¹³⁾ 이 시기의 제일 중요한 이력은 1927년 6월 신간회 경성지회 설립 직후의 선전부 상무간사와 제2회 경성지회 정기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이었다.¹⁴⁾ 본부 소재지 경성에 설치된 경성지회는 초창기 신간회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¹⁵⁾ 활동 경험이 풍부하지 않

13) 김동혁에 대해서는 장신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장신, 『『주보 조선지광』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444-445쪽; 장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240-241쪽.

14) 김영진,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14·35·37쪽.

15)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향토서울』 7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175-176쪽.

다고 하더라도 김동혁이 사회운동과 동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많은 글을 쓴 사람은 양명이다. 양명은 1927년에만 중국혁명과 관련한 네 편의 글을 썼는데, 북경대학 유학파이며 이 시기 엠엘과 공산주의 그룹의 일원이자 조공의 주요 인물로서 활동했다.¹⁶⁾ 그는 1927년 1월에 ‘중국 동란’을 직접 목격하고 오라는 조선일보사의 지시를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¹⁷⁾ 역시 엠엘과 소속이자 안광천 책임비서 시기 조공 중앙위원, 안광천 사임 이후 조공 책임비서였던 김준연도 국제관계 가운데 일본 동향을 다루는 세 편의 글을 발표하였으며,¹⁸⁾ 조공 경기도 당 위원을 지낸 곽종렬이 일본 『정치비판』(1927년 9월호, 산업노동조사소)과 정확한 출처 확인이 어렵지만 본문의 끝에 「현대인도지나(現代印度支那)에서」라고 표시된 곳에서 번역하여 세 차례 수록했다.¹⁹⁾ 또한 정우회 간부로 활동하며 조공 중앙위원 후보가 된 김영식은 이론적 논의가 가미된 두 편의 글을 발표했다.²⁰⁾

이처럼 전반기의 국제정세 기사는 후보 시기에 편집진이 논조를 확정했던 데에서, 월간 단계에서는 편집을 관장하고 있던 김동혁과 엠엘과 그룹이 주축이 된 조공 구성원이 주로 집필했다. 김동혁은 시평을 통해 국제정세 전반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글을 썼고, 조공 당원들은 논설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자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공유하면서

16) 박노자, 『조선 사회주의자 열전』, 나무연필, 2021, 214~227쪽.

17) 본사 특파원 양명, 「동란의 중국을 향하며」(1), 『조선일보』 1927년 2월 3일; 윤효정,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 194쪽 재인용.

18) 이준식, 『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83~184쪽.

19)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29쪽. 곽종렬, 「일본 각 정당정책에 관한 고찰」, 『조선지광』 73, 1927. 11, 21쪽; 곽종렬, 「전진의 영제국주의와 인도」, 『조선지광』 75, 1928. 1, 29쪽.

20)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96쪽. 71호의 경우 기사가 수록된 해당 지면에는 金汝植이라고 되어 있으나, 목차에 金泳植이라고 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이 73호 김영식의 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김문식이 김영식의 오기라고 판단하였다.

국제정세를 관찰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이 시기에 필진 사이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넘는 대립과 충돌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제국주의 열강의 알력과 ‘허구적 평화’ 비판

전반기의 『조선지광』은 일단 열강들의 대립과 각축을 중심축에 놓으면서 세계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제관계 기사의 필진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의 흐름에 집중했다. 파리강화회의로 성립된 베르사유조약 체제에 대해서 “세계의 평화를 도(圖)하는 회합이었다고 하나 기(其) 실은 열국이 모여 엇지면 독일로 하여 영구히 재기치 못하게 하고 그 이권을 평균이 분배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토의키 위한 회합”이라고 하며, 연합국의 요구로 인한 독일 국민의 피해가 독일의 보수화·반동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찍부터 고려하기도 했다.²¹⁾ 국제연맹 역시 세계평화를 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강국과 강국간의 이해의 범위를 협정하는 일종의 연합이 아니면 약소국의 강압을 위한 연맹이 아닐가?”라고 그 역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²²⁾

특히 1925년 10월 합의하고 12월에 서명한 로카르노조약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미봉적으로 타협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독일의 전쟁 배상금이 지불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벨기에가 루르 지방을 군사점령하고 나서기까지 한 상태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7개국 대표들에 의해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채택되었다. 조약 체결의 결과 독일은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은 비로소 이 시점에서 종식되었다.²³⁾

21) 『조선지광』 22, 1925년 10월 17일, 「고민에 泣하는 독일의 정세」.

22) 만오생, 「(시평) 범아세아연맹의 가능성」, 『조선지광』 62, 1926. 12, 53~54쪽.

23) 김용구, 『세계외교사(하) 1차대전에서 냉전질서의 형성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594~596쪽.

나아가 『조선지광』의 필자들은 1920년대 전반기 제국주의 세력 중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독일을 껴안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924년 출범한 영국 보수당 내각이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전 노동당 내각에서 추진한 소련과의 외교 수립 시도를 반대하고 중국에서 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로카르노조약은 독일과 소련의 접근을 저지함으로써 영국이 반소 고립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라고 결론지었다.²⁴⁾

사실 이와 같은 인식은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소련은 로카르노조약을 영국이 주도한 반소 동맹으로 받아들였고, 조약 체결 이전에 발표된 도스 안(Daws Plan) 자체도 독일의 경제적 부흥을 바탕으로 소련에 대항케 하려는 정책으로 이해하였다. 1922년 라팔로조약 체결 이후 소련의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서구 국가들로 기울게 된 것이었고, 소련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유럽의 주요 국가가 되었다.²⁵⁾

다음으로 『조선지광』은 로카르노회의 등으로 조성된 국제적 협조 분위기가 1927년 무렵부터 동요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1927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해군군비축소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3국이 참가했다. 그래서 3국 군축회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이 제의하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초청했지만 참가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상 없었다. 군축을 위한 노력은 로카르노회의에서도 합의된 조항 중에 하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25년 12월부터 국제연맹은 군축을 위한 실제 준비에 착수했으나, 제네바회의를 통해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²⁶⁾

24) 『조선지광』 24, 1925년 10월 31일, 「로카르노회의의 평화보장」; 『조선지광』 24, 1925년 10월 31일, 「(시론일속) 구주보장조약」; 만오생, 「(시평) 로영관계의 금석」, 『조선지광』 66, 1927. 4, 110쪽.

25) 노경덕, 「스탈린 외교를 바라보는 한 시각, 1927~1953」, 『역사비평』 121, 역사문제연구소, 2017, 375쪽.

김영식은 군축회의 실패가 결국 제국주의 열강의 실체를 폭로하고 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해군력 확장 경쟁이 재개된 상황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해군의 대대적 확장 계획을 발표하자 영국도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기 시작하였으며,²⁷⁾ 군축회의 이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 제국주의 세계대전쟁은 영미의 세계지배의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부상에 주목했다.²⁸⁾ 군축회의를 경과하면서부터는 미국의 정책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대두하였다.

최원순의 경우 세계를 국제연맹과 로카르노조약에 묶여 있는 유럽 세력, 소련, 미국 등 세 세력으로 구분한 뒤, 현재 국제정세상 미국의 지위가 소련이나 국제연맹 가입국 전체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²⁹⁾ 최원순은 미국이야말로 영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일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장래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존재라고 이해했다.³⁰⁾ 김준연은 미국·영국이 일본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일본이 난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소련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설명했다.³¹⁾ 미국에 대한 관심은 제국주의 국가의 분열이라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군축회의의 진행과 연동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지광』은 전반기의 마지막인 1928년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면서 아직까지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국제적 협조를 깨는 파격적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대두, 독일의 힌덴부르크의 집권 등 반동적 현상 등이 나타나더라도 결정적 변수가 되긴 어려우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보수당의 대외팽창주의와 미국 민주당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공세적 태도일 것으로 보았다.³²⁾

26) 김용구, 『세계외교사(하) 1차대전에서 냉전질서의 형성까지』, 601-602쪽.

27) 김영식, 「군축회의 결렬의 의의」, 『조선지광』 71, 1927. 9, 16쪽.

28) 김영식, 「현하의 국제 정정과 전쟁의 위기」, 『조선지광』 73, 1927. 11, 18쪽.

29) 최원순, 「극동에 몰려오는 삼대 세력」, 『조선지광』 70, 1927. 8, 7쪽.

30) 최원순, 「극동에 몰려오는 삼대 세력」, 13쪽. 그렇지만 최원순과 같은 시각은 『조선지광』의 전반기에 소수였다.

31) 김준연, 「일본의 극동정책」, 『조선지광』 70, 1927. 8, 5쪽.

1928년 8월 27일 부전조약(不戰條約)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선지광』은 비판적이었다. 부전조약은 국제연맹이 추진한 평화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브리앙(A. Briand) 외상이 미국의 켈로그(F.B. Kellogg) 국무장관에게 제안하면서 전개되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15개국이 서명했다.³³⁾ 김동혁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³⁴⁾

그런데 프랑스와 미국이 부전조약 교섭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자 미국 자본주의의 확장책이라고 애초부터 비판했던 소련은, 1928년 8월 초에 조약 가입에 대한 제의가 들어온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련은 제3조에 모든 국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을 근거로 조약에 가입했다. 소련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 등 대외적 안정이 중요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제국주의 열강의 반소 고립화 정책으로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거듭 영향을 미쳤다.³⁵⁾

흥미로운 것은 소련의 부전조약 가입 이후 『조선지광』의 부전조약에 대한 비판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다. 부전조약이 국제연맹 미참가국 미국까지 포괄하여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대신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군 군축협정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했다. 두 나라가 타협했다고 하더라도 1927년 4월 국제연맹 군축 준비위원회에서 소련 대표는 일반해군 철폐안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전혀 수용되지 않았고 소련의 노력은 “양두구육의 평화운동 본체를 폭로하는 의미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³⁶⁾ 제국주의 열강이 결코 평화를 달성할 수 없고, 미영 등의 내부적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32) 김동혁, 「1928년과 세계정국」, 『조선지광』 75, 1928. 1, 3쪽.

33) 김용구, 『세계외교사(하) 1차대전에서 냉전질서의 형성까지』, 606쪽.

34) 만오생, 「(시평) 부전조약?」, 『조선지광』 79, 1928. 7, 25쪽.

35) 김용구, 『세계외교사(하) 1차대전에서 냉전질서의 형성까지』, 614쪽.

36) S생, 「(시평) 영불국 해군협정의 내용」, 『조선지광』 81, 1928. 11·12, 29~30쪽.

‘허구적 평화’ 상태는 소련이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 정책과는 다른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이처럼 『조선지광』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이 쌓아온 평화 체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며 특히 영국의 기득권 수호와 신흥 미국의 세력 확보는 제국주의 내부의 안정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가 생산한 물품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게 될 때에 그 경쟁이 국제화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국제적 충돌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³⁷⁾ 그러므로 제국주의 세력이 사회체제가 다른 소련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고립화시키면서 반소동맹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이른바 ‘민족주의 좌파’로 분류되는 안재홍에게서도 확인된다. 안재홍은 이 시기에 언제든지 집단적 안보를 골자로 하는 평화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고 영미가 경쟁하는 가운데 소련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련이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 등의 반제국주의적 민족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였다.³⁸⁾

그렇지만 ‘허구적 평화’를 비판하며 약소민족의 해방을 염원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조선지광』의 필진과는 소련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약소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노농계급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 등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례가 『조선지광』의 중국 국민혁명에 대한 기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1920년대 중후반 『조선지광』의 ‘사회주의 잡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3) 중국 국민혁명에서 소련의 기여와 노농계급의 활동 조명

『조선지광』의 전반기에 가장 많이 실린 국제정세 기사는 중국문제였

37) 『조선지광』 임시호, 1925년 11월 16일, 「중국의 동란과 그 형세」.

38) 김명구, 「안재홍의 1920년대 구미 정세 인식」, 5-17쪽.

다. 손문이 이끄는 중국국민당이 진독수의 중국공산당과 합작하여 반군벌·반제국주의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국민혁명을 일으켰던 직후와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중국의 변화가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물론 『조선지광』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반영 운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면서 인도 민중이 영국의 자치 제안을 뿌리치고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기대를 걸었지만,³⁹⁾ 영제국의 분열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다루었을 뿐이다.

64호와 65호에 걸쳐 「중국 무산계급과 그 운동의 특질」을 번역한 역자는 “우리는 항상 영국, 미국, 독일, 불란서를 말하되 중국을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상식의 천박함이 심하다”고 하면서, “지역이 인접하여 자고로 교통이 빈번하였으며 문물의 같음과 풍속의 유사한 점으로 보아 가장 우리가 친하여야 할 중국이며, 더구나 자본주의의 각축장인 점으로 보아 자못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이므로 중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⁴⁰⁾

이러한 방향에서 『조선지광』은 1925년 중국 관세회의의 개최로부터 1926년 시작된 북벌의 과정, 1927년 4월 국공합작의 분열까지도 자세히 분석하였다. 조선지광사 편집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여언」에서는 “남군(南軍)의 지나는 곳에 영미 등 제(諸) 열강 제국주의는 안색이 없이 붓짐 싸기 분망하여 한다. 잠든 사자도 봄을 맞았으니 아무리 후안무치기로야 그 잠을 그대로 계속 해달라는 주문은 도리어 잠든 사자를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라고 중국 국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생생히 전달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⁴¹⁾

39) 만오생, 「(시평) 대영제국의 분열」, 『조선지광』 62, 1926. 12, 55쪽; 만오생, 「(시평) 로영관계의 급석」, 110쪽; 만오생, 「(시평) 영령 인도의 자치문제」, 『조선지광』 77, 1928. 3·4, 28~29쪽.

40) 이인걸, 「중국 무산계급과 그 운동의 특질(속)」, 『조선지광』 65, 1927. 3, 71쪽 중 역자의 말.

41) 『조선지광』 66, 1927. 4, 「편집여언」.

또한 중국 국민혁명이 제국주의 열강 내부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했다. 1925년에는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열강들이 “화부회의(華府會議, 워싱턴회의-인용자) 4국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곧바로 봉직전쟁(奉直戰爭)에서 일본은 장작림을, 미국은 오패부를 후원하는 등 어떻게든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았다.⁴²⁾ 김준연은 중국문제가 일본 정계와 극동정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1927년 4월 성립된 다나카(田中) 신내각이 어떠한 대중(對中) 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⁴³⁾ 1927년 7월 이후에는 중국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이 소련과의 대립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⁴⁴⁾

『조선지광』의 필진은 중국 국민혁명이 민족통일전선 형태로 군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이끌어간 데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아가 내홍으로 언제든지 혁명군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당과 공산당이 분립하는 것뿐이지 국민혁명의 의미는 축소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⁴⁵⁾ 국공 양당의 분열 이후에도 “단언을 피하고 괄목하고 그의 장래를 주시할려 한다”는 언급에서 읽을 수 있듯이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 성과를 계승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⁴⁶⁾ 또한 주의상의 차이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노력도 『조선지광』 지면에서 확인된다.⁴⁷⁾ 반(半)식민지 중국에서 민족해방투쟁으로 국민혁명의 대의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조선지광』은 이 혁명이 소련의 기여와 중국의 노동계급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계급적 입장을

42) 『조선지광』 23, 1925년 10월 24일, 「중국의 동란과 중국인의 각성」.

43) 김준연, 「금번 일본정변의 의의」, 『조선지광』 67, 1927. 5, 6쪽.

44) 김준연, 「일본의 극동정책」, 『조선지광』 70, 1927. 8, 5쪽.

45) 만오생, 「(시평) 갱생하는 노중국」, 『조선지광』 66, 1927. 4, 109쪽.

46) 양명, 「중국문제 산평」, 『조선지광』 70, 1927. 8, 17쪽.

47) 만오생, 「(시평) 중국문제 잡관」, 『조선지광』 71, 1927. 9, 21쪽.

부각시켰다. 김동혁은 국민당의 삼민주의는 사회주의와 사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국공분열 이후에도 국민당 좌파가 국민혁명의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⁴⁸⁾ 장개석이 모스크바에서 당 균제도를 학습하고 미하일 보로딘 등 소련인 고문이 혁명운동을 도왔던 사실, 손문이 삼민주의를 내걸 때 정자유전의 원칙 등을 반영하여 좌우 이념적 통합을 모색했던 점⁴⁹⁾ 등을 떠올리게 하는 해석이었다.

또한 이성태는 소련이 과거 제정러시아가 중국을 침략했던 정책을 전환하여 중국의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혁명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⁰⁾ 이는 후술하겠으나 1929년에 발생하는 남경정부와 소련 사이의 중동철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소련이 약소민족 피압박대중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영국은 광대한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많은 민중을 압제 아래 두고 있는 반면에, 소련은 영국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⁵¹⁾

소련의 기여를 언급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국주의 열강의 반소 정책에 의해서 고립된 가운데에도 소련을 세계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인식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국공합작 결렬 직후 분열의 원인을 중국공산당에게 찾는 이정섭의 글에 대하여, 양명이 국민혁명의 의의를 수호하는 한편 공산당은 민족통일전선의 유지와 대중투쟁의 고양에 힘썼는데 장개석이 반공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⁵²⁾

48) 만오생, 「(시사평단) 중국문제 잡관」, 『조선지광』 79, 1927. 8, 23~24쪽.

49) 유용태·박진우·박태균, 『(개정판)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6, 288쪽.

50) 이성태, 「민족적 연맹과 계급적 협동」, 『조선지광』 58, 1926. 8, 4쪽.

51) 「로카르노회의의 평화보장」 참조.

52) 양명, 「국민당 좌우파와 중국혁명」, 『조선지광』 69, 1927. 7, 25쪽, 27쪽. 『조선지광』의 전반기에 국공합작의 결렬을 공산당과 소련의 탓으로 본 경우로 최원순, 「극동에 몰려오는 삼대 세력」, 10쪽 참조. 소련이 국민당 내에서 共產, 非共產이라는 구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소련과 사회주의자의 기여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과 함께, 국민혁명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노농계급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들이 혁명의 향방을 결정할 주역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국민혁명 발발 단계에서 군벌의 몰락과 광둥군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중국 민중의 성장을 이끌 것이므로 중국문제의 핵심이 이들의 움직임에 있다고 한 것이나,⁵³⁾ 중국 노농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이인걸의 글을 번역·계재하면서 “중국 신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경청을 요구한다”라고 하여, 국민혁명을 노농계급의 시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⁵⁴⁾

국민혁명이 끝나고 남경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혁명과정을 회고하면서, “중국의 일반 인민은 각성하였다. 그들도 이제부터 자기의 이해를 알고 자기의 의식을 가진다. 그러치 안한가? 중국의 오늘날 이만한 진전도 어느 영웅적 개인의 공세보담 실로 일반 인민의 추진하는 파도다”라고 하여 노농계급의 의식 성장과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⁵⁵⁾ 자본주의 자체 모순과 사회생활의 결합으로부터 오는 대중의 자각이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해석했다.⁵⁶⁾

국민혁명은 조선에서 민족통일전선체 신간회가 조직된 시기와 겹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국민혁명은 신간회의 결성과 운영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언론 매체 등이 국민혁명을 소개하면서 신간회에 대한 지지와 창립을 추동하기 위한 담론 구축에 주력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⁵⁷⁾ 『조선지광』도 조공의 기관지로 운영되면서 민족통일전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종 논설을 게재하는 등 신간회 운영에 적극적이었던 매체였기 때문에, 국민혁명 지지와 신간회 결성은 당연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53) 만오생, 「(시평) 중국의 남북분열」, 『조선지광』 62, 1926. 12, 55쪽.

54) 이인걸, 「중국 무산계급과 그 운동의 특질(속)」, 71쪽 중 역자의 말.

55) S생, 「(시평) 중국문제의 장래」, 『조선지광』 81, 1928. 11·12, 29쪽.

56) 김동혁, 「1928년과 세계정국」, 『조선지광』 75, 1928. 1.

57) 윤효정,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 참조.

그렇지만 다른 신문·잡지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 혁명을 민족적이 아닌 계급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종의 원칙을 제기한 점이다. 『조선지광』이 국민혁명과 소련, 사회주의, 노농계급 등의 관계를 중요시 했듯이, 반일·반제 국제연대가 계급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다소 일반론적인 면이 있지만, 이성태는 1925년에 다음과 같은 관점이 국제정세를 관찰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적 각축장에서－인용자) 상적시(相敵視), 상반발(相反撥)하는 민족간의 민족적 연합 감정의 진작을 고조하야 (아세아민족대회와 여如한) 그 민족연합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생활의 이해관계상) 성립되지 못할 골계(滑稽)한 궤변과 갖 혼 현상으로 볼 수밖게 다른 길이 업다. 그럼으로 이 반발되는 민족간의 협동일치는 이러한 민족간의 그것이 아니라 공통한 생활이해감을 체득하고 있는 계급간에 잇서서 비로소 가능하고 또 유효한 진화과정 이 될 것⁵⁸⁾

제국주의 열강의 분열을 목격하고 그를 활용하기 위해 민족연합을 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로지 압제에 놓여 있는 보편적 계급 사이에만 연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조선지광』은 제국주의 국가대 피지배민족을 대립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압박대중을 가장 중요한 주체로 부각시키고 있었고 대중투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지광』이 국민혁명을 상세히 기사화한 데에는 ‘중국처럼’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자는 의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사의 변화 기운이 집약된 ‘극동지역’에서 ‘중국 노농계급과 함께’하려는 계급적 국제연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58) 이성태, 「민족적 연맹과 계급적 협동」, 4쪽.

3. 대공황의 영향과 중국혁명에 대한 열망(1929~1932)

1) 문필가 필진과 ‘신진 사회주의자’의 주도

후반기의 『조선지광』에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65개의 국제관계 기사가 수록되었다.⁵⁹⁾ 1930년대 초로 갈수록 한 호당 쪽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반기와 기사 숫자를 단순 비교할 때보다 국제관계 기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7호(1929년 9월)와 89호(1930년 1월)에는 각각 ‘국제정국의 일면관’과 ‘국제정세의 추향’이라고 이름 붙인 특집이라 할 만한 원고들도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연재물을 묶어 이름을 붙인 것으로 꼼꼼히 준비된 기획은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가 있더라도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표 2> 후반기(1929~1932년) 『조선지광』의 국제정세 기사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82	1929.1	이관구	국제연맹과 군축문제
		김우평	轉轉하는 각국의 政情
		만오생	(시평) 세계개조10주년, 금후 정국의 추향 여하, 중국의 현상과 금후
83	1929.2	이관구	국제연맹과 군축문제(2)
		배성룡	일중경제관계와 그 전도
		KW생 (KM생) ⁶⁰⁾	(시사평단) 田中내각의 안정, 전국대회를 앞둔 중국 정국의 장래 여하
		이여성	애급의 현재 과거 급 장래

⁵⁹⁾ 실물을 접하지 못한 97호, 101호는 신문에 실린 ‘신간소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기사 목록을 추출했다. 97호, 101호에 실렸다고 추정된 것은 전체 기사 개수 65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정세 인식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했다.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84	1929.4	이관구	국제연맹과 군축문제(3)
		만오생	(시사평단) 의회 종막, 전화 중의 중국
		이여성	애급의 현재 과거 급 장래(2)
85	1929.6	만오생	(시평) 내각 개조와 금후의 처지, 풍옥상의 하야와 그 정국의 장래 여하, 영국의 총선거전
86	1929.8	만오생	(시사평단) 민정내각의 성립, 세계는 어대로 가느냐?, 미국의 경제적 진출
		여성생 (이여성)	인도의 과거와 현재
87	1929.9	배성룡	(국제정국의 일면관) 영국의 정치과정
		김동석	(국제정국의 일면관) 독일을 중심한 구주금융자본 활약
		이관용	(국제정국의 일면관) 露中분쟁의 시비와 이해
		김수산	(국제정국의 일면관) 미국의 태평양정책
		함상훈	(국제정국의 일면관) 금후 일본 무산계급운동의 전망
		이여성	인도의 과거와 현재(2)
88	1929.11	최상해 (최용달)	중동철도를 중심으로 한 중로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견해와 오류
		김동석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구주 금융자본의 활약(2)
		이여성	인도의 과거와 현재(3)
89	1930.1	SS생	(시사평단) 최근의 일본 정정
		만오생	(시사평단) 57회의와 정국의 전망, 정당과 의욕, 군축의 의의는 무엇인가?
		최상해	(국제정세의 추향) 태평양문제의 일고찰: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김동석	(국제정세의 추향)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구주금융자본의 활약(3)
		유완희	(국제정세의 추향) 합법 비합법: 노동당의 갱생
		배성룡	(국제정세의 추향) 영미제국주의의 세계패권정책의 대립
이여성	(국제정세의 추향) 인도의 과거와 현재(4)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90	1930.3	이관구	보선 제2회 총선거를 보고서
		雙巖	스타-린의 이론과 5개년 계획
		성재 (이관구)	(시사평단) 뿌르조아 정당정치 완성, 문돈회의의 성패
91	1930.6	배성룡	구주연맹 문제의 검토
		유기두	군축협정과 태평양의 장래: 일영미의 삼각관계
		주요섭	미국 양당정치의 실패
		만오생	(시평) 중국의 반장운동, 영국의 가는 곳은 어디인가?
92	1930.8	김상각	중국소베트대표자회의와 홍군의 활동
		주요섭	인도의 장래
		김장환	중국의 남북전쟁
93	1930.11	주요한	중국문제 여시관
		김장환	대영국의 변민상과 영제국회의
94	1931.1 · 2	배성룡	1930년 세계공황의 전망: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위기
		함상훈	일본노동당 해소문제
		주요섭	英印원탁회의
		김장환	세계정국의 동향
95	1931.4	유춘수	조선경제공황의 특질
96	1931.5	한설야	남경국민회의의 정체
		박경수	노동당 해소문제의 사회적 의의: 본지 전호 함상훈씨의 소론을駁함
		一譯者	'산업당'의 음모에 대하여
97	1931.7 · 8	(시평) 국민당의 계급적 본질, 소련5개년계획의 세계사적 의의, 최근의 인도정세 (출처: 『조선일보』 1931년 8월 2일, 「신간소개」)	
100	1932.2	A.M (A.말루치노푸)	세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위기로의 전화의 문제
		한설야	남경국민정부와 蔣張의 귀추
		안막	소련5개년계획의 세계사적 의의
		RW(임화)	전후 자본주의 제3기의 제문제
			세계를 진감하는 반종교의 함성!!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101	1932.3		자본주의적 '계획경제' 사상의 검토(蘇建) 국제적 정세의 최근의 추향(또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전망')(한병도) 국가사회주의의 대두와 사민당의 전향(또는 '팻시슴의 대두와 사민당의 전향')(오소인) 세계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상태(인영익) 싸벳트러시아의 최근 풍문(C,A) 세계 반싸벳트 경제전선의 전망(B,A) (출처: 『조선일보』 1932년 3월 23일, 「광고: 전투적 전통에 빛나는 조선지광 3월호」; 『조선일보』 1932년 3월 25일, 「신간소개」)

전반기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표 2>를 통해서 후반기의 필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반기에 활동했던 필자 가운데 후반기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김동혁 한 명뿐이다. 김수산의 경우 「손문과 삼민주의」를 초역한 수산생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하긴 어렵다. 잡지의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평과 국제정세 인식에서 김동혁의 역할이 『조선지광』 전체 기간동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동혁의 기사 6개 가운데 마지막 글은 1930년 6월의 91호에 실린 것이다. 101호 중간까지 10개호가 더 출간되었고 대략의 목차를 알 수 있는 권호가 8개호나 되지만 김동혁의 활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경영난 때문에 분주했기 때문이거나, 국제관계 지면의 주축 필진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소한 1931년 4월의 95호부터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고 판단된다.

전반기에는 김동혁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공 당원이었는데, 후반기에는 글쓰기를 주업으로 삼는 문필가들이 국제관계 기사를 담당했다. 이는 1929년 1월의 82호부터 1932년 3월의 101호까지 대체로 비슷했다. 비합법 실천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필자들이었다. 많은 횃수의 글을 쓴 사람부터 꼽아보면 이여성이 1930년 1월의 89호까지 6회를, 이관구가 1930년 3월의 90호까지, 배성룡이 1931년 1·2월의 94호까지 각

60) 해당 원고는 KW생, 목차에는 KM생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5회를, 김동석이 89호까지, 주요섭과 김장환이 94호까지 각각 3회를, 최용달이 89호까지, 함상훈이 94호까지, 한설야가 1932년 2월의 100호까지 각각 2회를, 이관용(1929년 9월의 87호), 김상각(1930년 8월의 92호), 주요한(1930년 11월의 93호), 김수산(87호), 김우평(1929년 1월의 82호), 유완희(89호), 유기두(91호), 유춘수(95호), 안막(100호), 임화(100호)가 각각 1회씩 집필했다.

중복의 여지가 있으니 KW생, 쌍암, 일역자 등의 필명 기사를 제외하고⁶¹⁾ 20명의 필진을 조선지광사가 『조선지광』의 종간 이후 1932년 10월 창간호를 펴낸 『신계단』의 필진과 비교해보면(〈부표 1〉 참조), 94호까지 여러 차례 글을 쓴 필자들은 전혀 활동하지 않고, 한설야가 실물을 볼 수 없는 101호와 『신계단』 2호, 3호에, 임화가 6호, 8호, 9호에 국제관계 기사를 게재하였다. 필진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측해보면 95호부터 기존과는 다른, 주로 문예 활동을 담당하던 카프(KAPF) 계열의 ‘신진 사회주의자’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후반기 94호까지 문필가 필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여성, 배성룡, 최용달, 이관용 등 사회주의 성향이 비교적 분명했던 이들도 있지만, 『동아일보』의 논설을 오랫동안 맡았던 김우평의 경우는 ‘민족주의 우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이 시기에는 김동혁이 잡지의 유지를 위해 국제정세 기사는 최대한 문필가 집단에 의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진을 하나의 이념 집단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진 중에 김동혁과 함께 1928년 8월 신간회 본부 회보 편집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⁶²⁾

⁶¹⁾ 100호의 A.M은 해당 글의 말미에서 이 글이 “DK 1930년 12월 14일 제48호에 실린” A. 말루치노프의 견해라는 설명에서 확인했다. 참고로 이러한 부연 설명을 덧붙인 사람은 R생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RW가 임화라는 것은 100호 신간소개 기사에 근거했다. A.M, 「세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위기로의 전화의 문제」, 『조선지광』 100, 1932. 2, 18쪽; 『조선일보』 1932년 2월 3일, 「광고: 전투적 전통에 빛나는 조선지광 3월호」.

즉 조공 탄압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조선지광』의 유지를 위해 김동혁이 동본서주했던 것처럼 국제정세 기사도 특정한 운동 세력이 이끌었다기보다 언론계의 문필가 가운데 과거 사회운동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합법적·대중적 사회운동 단체인 신간회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용달처럼 마르크스주의 경향의 학자들이 이 지면을 활동 공간으로 간주하고 논설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며,⁶³⁾ 이러한 불안정한 논조에 반기를 든 것이 95호 이후 카프 계열이 포함된 ‘신진 사회주의자’들이었다.

96호에 실린 박경수의 글은 94호 수록 함상훈의 일본 노동당 해소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1930년대 ‘사회주의 잡지’ 일반의 ‘~을 박(駁)함’이라는 표현 방식을 똑같이 보여준다. 내용상으로도 프로핀테른 서구(西歐) 서기국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함상훈이 소수 몇몇 운동가·정치인에 의해 해소가 결정되었다고 본 것은 자본주의 제3기 상황과 노동자·농민의 혁명적 역량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⁶⁴⁾

여기서 다시 한 번 『신계단』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위 박경수의 글에도 프로핀테른의 문건이 직접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조선지광』 100호에 처음으로 소련 사람 이름을 내건 기사가 번역되어 실렸는데, 『신계단』의

62) 『동아일보』 1929년 8월 24일, 「신간 상무위원회」, 회보 편집위원으로 선거된 사람은 이관용, 안재홍, 이종린, 주요한, 김한, 함상훈, 조병옥, 이시완, 이관구, 박완, 김동혁 등 11명이다. 이관용, 주요한, 함상훈, 이관구, 김동혁 등이 국제관계 기사 필진으로 참여했다.

63) 경성제대 출신 마르크스주의자 가운데 유진오는 1927년부터 소설을 투고하면서 『조선지광』과 관련을 맺었다. 한편 유진오·최용달·이강국 등은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 잡지 『新興科學の旗のもとに』 등과 교류하였다. 이들은 『대중공론』이나 『사회주의 잡지』 등에 활발하게 기고하면서,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의 잡지 『신홍』과는 별개로 운동의 뜻을 품고 『朝鮮科學』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최용달의 『조선지광』의 국제관계 기사 집필도 이러한 실천운동에의 개입과 연관되었다. 조형열, 「1930년대 전반기 경성제대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의 학술문화운동」,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참조.

64) 박경수, 「노동당 해소문제의 사회적 의의: 본지 전호 함상훈 씨의 소론을 駁함」, 『조선지광』 100, 1931. 5, 15쪽.

국제정세 기사의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자주 확인된다. 편집부 명의의 기사들도 코민테른과 소련의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국제정세를 여러 채널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위축되어 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진영간 대결 구도 이해의 확립

1929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1929년과 1930년에 국제관계 기사가 많아지는 데에는 이러한 주기도 영향을 미쳤다. 후반기의 시작인 1929년 시점의 국제정세 인식은 전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제연맹 결성으로부터 군축, 부전조약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오히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기에 미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며 영국과 대립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다.⁶⁵⁾ 그리고 1930년까지도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분열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29년 영국에서 노동당 내각이 수립되고,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여 군축 논의가 재개되었으나 결국 미국 금융자본이 압박을 가할 것이고,⁶⁶⁾ 영국 노동당도 인도 식민지에 자치를 허용하겠다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숨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⁶⁷⁾

이러한 논지는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대립을 자본주의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조선지광』의 전반기에도 강대국의 분쟁을 자본주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으며, 이는 후반기에도 이관구가 전쟁은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충돌로부터 일어나는 불가피한 손실이다, 자본주의

65) 이관구, 「국제연맹과 군축문제」, 『조선지광』 82, 1929. 1, 3~4쪽; 만오생, 「(시평) 세계개조 10주년」, 『조선지광』 82, 1929. 1, 38쪽; 만오생, 「(시사평단) 세계는 어대로그나냐?」, 『조선지광』 86, 1929. 8, 33~34쪽.

66) 만오생, 「(시사평단) 군축의 의의는 무엇인가?」, 『조선지광』 89, 1930. 1, 45쪽.

67) 배성룡, 「영제국의 정치과정」, 『조선지광』 87, 1929. 9, 8쪽.

발전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쟁의 위기는 더 커지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⁶⁸⁾ 대부분의 필자들에게 수용되는 시각이었다.

그런데 1930년을 경과하며 『조선지광』 내에는 세계를 제국주의 국가 대 소련의 대립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최소한 『조선지광』 지면의 국제정세 분야에서 이러한 인식을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키며 새로운 논의를 이끈 것은 최용달이었다. 최용달은 1930년 전후의 정국을 세계경제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주로, 즉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현재 세계를 자본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자본주의 급속 향상을 보여주는 미국·일본,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는 영국, 또한 최근에 자본주의가 발흥하고 있는 중국·캐나다, 자본주의적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프랑스·이탈리아 등등을 예시로 들면서 세계적 불균등이 식민지 재분할과 확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일본과 영국은 미국의 진출을 심각하게 경계하면서 또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치된 행동을 함께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무대가 중국대륙이라고 하였다.⁶⁹⁾

국제 제국주의는 결코 동질적 유기체를 구성치 않는 것이며 개개의 제국주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혁명(支那革命)에 대하여서는 통일적 전선을 시(試)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따라서 혁명의 제1단락의 불리한 원인인 동시에 신계급의 비등점이 될 것이라는 것도 요해키 어렵지 않을 것 ... 자본주의 세계와 쏘베트연방의 관계는 대략 두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스니 군사적 공세와 평화적 관계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 두 경향은 결코 획일적의 것이 아니라 후시 평화(경제적 관계) 후시 군사일 것이다. 과거에 잇서서 영로의 절교, 천진·북경·상해의 습격 등은 후자의 일례이라고 하겠다. 즉 자본주의 열강은 호상간 진영의 이해충돌의 대립이 첨화(尖化)하면서도 쏘베트연방에 대하여는 통일적 전선을 시하고 있는 것이다.⁷⁰⁾

68) 이관구, 「국제연맹과 군축문제」, 2쪽.

69) 최상해, 「태평양문제의 일고찰: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조선지광』 89, 1930. 1, 86~87쪽.

최용달은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똑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며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곳 즉 중국혁명의 현장에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제국주의의 분열에만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 제국주의 일반은 경쟁하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연합한다, 이는 중국혁명을 비롯한 혁명운동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신계급 즉 피압박대중은 바로 이러한 관문을 통과해야 혁명의 도정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용달은 현재 세계의 두 축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와 소비에트연방은 때로는 평화를, 때로는 군사적 대립을 거듭해왔는데 영국과의 국교 단절이나 국민혁명에 대한 파괴 행동은 충돌 국면의 사례로서, 자본주의 세계는 소련에 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조선지광』의 전반 기에도 제국주의 국가의 평화정책이 이른바 반소 고립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듯이, 자본주의·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을 국제관계상에서 항상 고려하였지만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진영간 대립이 국제정세 기본 구도로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30년부터 영향을 미친 세계대공황은 이러한 인식의 확산을 이끌었다. 대공황 이후 『조선지광』은 “1930년은 곧 미증유의 공황이 세계적으로 습래한 까닭이니 그 부분적 현상이 전체 현상화하여 공황이 세계화한 것”이고, 제국주의 열강이 공황 상태에 분주한 가운데 “경제상의 체계를 달리한 ‘소비에트’연방의 성쇠에 관심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이라 하였다.⁷¹⁾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95호 이후에 필자와 국제관계의 주제 등에서 변화가 확인되는데, 이 무렵이 신간회 해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대두되던 시점이었다.

70) 최상해, 「태평양문제의 일고찰: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93~94쪽.

71) 배성룡, 「세계공황의 전망: 자본주의경제의 일반적 위기」, 『조선지광』 94, 1931. 1·2, 2·7쪽.

물론 진영적 이해가 부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필가 필진 가운데 그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김장환은 세계정국이 구미 열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개 평화 상태라고 불리던 때에는 독일-프랑스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1930년 9월에 국수사회당이 제2당으로 급성장한 것이 위험을 예고한다며, 독일이 국제연맹에 대해서 자국의 제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민심이 악화되고, 독일과 소련 등에서 제휴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국주의 열강과 소련이 대립하더라도 그 상황이 언제 변화할지 알 수 없고, 소련이 반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외교적 목표 아래 언제든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장환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가 블록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나 향후 세계의 대립은 독-프 관계와 중화민국 문제, 그리고 인도 등의 식민지 약소민족운동 등에 의해서 촉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⁷²⁾

그러나 『조선지광』의 하반기는 “자본주의 세계와 싸벳트동맹과의 모순”을 핵심으로 이해하는 A. 말루치노푸의 국제정세 분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기사를 소개하는 편집자는 이 글이 발표되고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 정세에 대한 설명이 뒤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국제정세의 최종심적 문제”를 “x-x(레닌-인용자)의 견해를 옹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⁷³⁾ 여기서 이 기사의 필자는 현재 세계정세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반동과 혁명의 대립, 부르주아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팃쇼화 등으로 설명하였다.⁷⁴⁾ 이는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의 ‘계급 대 계급’ 노선과 ‘사회파시즘론’을 잇는 주장이었으며,⁷⁵⁾ 세계를 보는 『조선지광』

72) 김장환, 「세계정국의 동향」, 『조선지광』 94, 1931. 1·2, 25쪽.

73) A.M, 「세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위기로의 전화의 문제」, 18쪽.

74) A.M, 「세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위기로의 전화의 문제」, 6쪽.

의 시각이 점차 진영적 구도로 수렴되고 193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잡지’에서 확인되는 논리 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중국혁명의 모색과 동맹자로서 소련의 의미 부여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독려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각지에서의 대중투쟁을 조명하는 것은 ‘사회주의 잡지’로서 『조선지광』이 전체 시기동안 놓지 않던 원칙이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 인도의 동향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여성은 이집트와 인도 문제를 다루었고, 인도의 반영투쟁을 정리하며 노동자·농민의 조직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⁷⁶⁾ 주요섭도 간디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군중의 힘이 강하고 인도에 자치문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말했으며, 인도의 뒤에 소련이 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⁷⁷⁾

『조선지광』은 후반기에도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중국혁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1929년 이후 시점은 이미 국민당이 ‘안내양외(安內攘外)’의 원칙 아래 정부를 이끌며 공산당과 대립하던 상황이었고, 특히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조약 개정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⁷⁸⁾ 『조선지광』도 정부를 둘러싼 군벌 세력과의 대립, 중국의 조약 개정 상황과 이권 확보, 남경정부의 운영 상황 등등에 대해서 주목했다.

김동혁은 중국이 1928년 12월 23일까지 10개국과 불평등조약을 개정하여 국제적 지위가 한 발 향상되면서 대외관계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75) 케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서해문집, 2009, 132~185쪽.

76) 이여성, 「인도의 과거와 현재(4)」, 『조선지광』 89, 1930. 1, 135쪽. 이와 같은 작업은 이여성의 ‘세계약소민족의 연구’ 시리즈의 일환이었다. 이여성의 약소민족운동 연구에 대해서는 신용균, 「1930년 전후 이여성의 약소민족운동 연구와 민족해방운동론」, 『사총』 7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참조.

77) 주요섭, 「장래의 인도」, 『조선지광』 92, 1930. 8, 15쪽; 주요섭, 「英印원탁회의」, 『조선지광』 94, 1931. 1·2, 22쪽.

78) 유용태·박진우·박태균, 『(개정판)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409쪽.

점을 축하하지만, 군벌 및 좌파 세력과 계속 대립하는 것이 과연 남경정부의 미래에 유리한가, 그러한 행동이 중국 민중이 이상하는 바와 합치되는가 의문을 제기했다.⁷⁹⁾ 다른 필자는 군벌 세력과 국민당 우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부가 좌파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것이 과연 하층 민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주목된다면서, 향후 중국이 “우파의 세계냐? 좌파의 천하냐?” 세계인의 눈길을 끈다고 썼다.⁸⁰⁾ 어조는 차분하지만 국민혁명 단계까지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남경정부에 대한 반대와 회의의 관점이 깔려 있고, 이미 장개석의 독무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⁸¹⁾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놓았다.

잔잔한 관찰로부터 중국혁명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한 전환점은, 중동철도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였다. 이는 『조선지광』의 전반기에 국공합작의 결렬 원인을 놓고 논쟁이 있었던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남경 국민정부가 중동철도 회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929년 7~8월 사이에 소련을 ‘소비에트제국주의’, ‘적색제국주의’로 비난했다.⁸²⁾ 『조선지광』은 이에 대하여 1929년 9월의 87호를 통하여 남경 국민정부와 소련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관용은 현재 남경정부가 그동안 열강들에게 약탈당한 ‘기득권익’을 되찾기 위해 강자가 약자를 굴복시키려고 제정한 국제법규·관례를 활용하여 소련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남경정부의 친제국주의적, 반혁명적 성격을 지적했다. 중국 민족이 약소민족인 것은 옳지만

79) 만오생, 「(시평) 중국의 현상과 금후」, 『조선지광』 82, 1929. 1, 40쪽.

80) KW생, 「(시사평단) 전국대회를 압둔 중국정국의 장래 여하」, 『조선지광』 83, 1929. 2, 26쪽.

81) 만오생, 「(시사평단) 전화 중의 중국」, 『조선지광』 84, 1929. 4, 31쪽; 만오생, 「(시평) 풍옥상의 하야와 그 정국의 장래 여하」, 『조선지광』 85, 1929. 6, 31~32쪽.

82) 홍정완·전상숙,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신서원, 2018, 111~114쪽.

그 일부가 제국주의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중동철도를 되돌려주지 않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강경대응한다 해도 이를 제국주의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부와 소련의 분쟁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서 소련에 대항하고 있는 세계 부르주아지의 음모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중동철도 문제를 중국의 시각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지적했다.⁸³⁾

다음으로 최용달은 중국 국민혁명 당시 소련의 지원을 상기시키면서, 『동아일보』 사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제일 먼저 소련이 중국혁명을 지지하는 근본 이유가 세계혁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다. 『동아일보』 사설이 소련이 국제주의를 표방한다면 모든 지역의 민족자결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무배상·비병합의 원칙으로 약소민족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쏘벳트’연방은 전세계의 제국주의 국가와 대립하여 고립상태에 있다. 단순히 무산자 국가라는 이유로! 생각하여 보라. ‘쏘벳트’연방의 세계정책을! 오인은 이곳에서 그것을 상술(詳述)할 여유도 자유도 가지지 못하지만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그들의 세계정책은 전세계의 무산계급의 그것이 안인가. 이 의미—그것이 전부—에 있어서 ‘쏘벳트’연방의 정책은 결코 제국주의 국가와 갖은 국가에 한한 것이 안인 것을 알 것이다.⁸⁴⁾

소련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전세계의 무산계급의 해방을 세계정책으로 삼고 있는 나라로 중동철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러시아혁명 이후에 수십억 루블의 건설·경영 비용을 수 차례에 걸쳐 무배상으로 포기하였다, 둘째, 지금 소련이 러시아제국의 동방 진출을 위한 중동철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83) 이관용, 「로중분쟁의 시비와 이해」, 『조선지광』 87, 1929. 9, 20-21쪽.

84) 최상해, 「중로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견해와 그 오류: 동아일보 사설을 비판함」, 『조선지광』 87, 1929. 9, 81쪽.

셋째, 『동아일보』 사설은 중동철도를 돌려달라는 남경정부의 요구가 ‘국민주의’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⁸⁵⁾

마지막으로 최용달은 중국의 대중도 국민정부의 이와 같은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이권문제도 계급운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남경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자위권을 방기하고 세계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식민지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백계 로인(露人)’이 혁명의 선두에 서고, 남경정부의 주축 군벌의 분립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중국의 대중이 장개석 정부와 맞서 싸우는 계급적 진출의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⁸⁶⁾

이관용이 남경정부가 제국주의 국가와 결탁하여 국민혁명의 변질을 이끌고 그릇된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비판했다면, 최용달은 민족주의 세력의 소련에 대한 ‘악선전’을 바로 잡고 소련과 세계혁명의 입장에서 중동철도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였다. 물론 이관용도 소련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서 고립되었고 약소민족해방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으나, 최용달의 경우 중국혁명의 의의와 계급적 관점의 중요성을 선명하게 제기하였다. 물론 둘 사이에는 소련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향후 중국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중국 노동계급이 될 것이라는 공통점도 있었다.

이상 중동철도 문제에 대한 두 편의 글은 『조선지광』의 중국혁명 인식 가운데 계급 중심적 논조를 선보인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후반기 『조선지광』에는 문필가 필자들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은 논조의 기사가 수록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한은 중국 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중

85) 최상해, 「중로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견해와 그 오류: 동아일보 사설을 비판함」, 83쪽.

86) 최상해, 「중로관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견해와 그 오류: 동아일보 사설을 비판함」, 85-90쪽.

의 생활에 근거하여 중국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중국 문제가 후퇴하거나 역전된 것은 아니라며 남경정부를 지지했다.⁸⁷⁾ 그러나 1930년을 지나며 중국혁명에 대한 대다수의 관점은 남경정부가 제국주의 국가들과 연결되어 중국 민중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진전, 노농계급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최용달은 제국주의 열강이 남경정부와 손을 잡고 불평등조약 개정에 나선 이유가 ‘과격파’의 소탕에 있다면서,⁸⁸⁾ 중국혁명이 세계혁명의 동반자로서 소련과 중국 노농계급의 역량 아래 다시 한 번 국면 전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설야는 남경정부가 제국주의 열강과 협조 아래 국민회의를 통해 부르주아 정권의 기반을 닦았지만, 열강이 경제적 이익을 계속 요구하는 순간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 대중에 의해 혁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⁸⁹⁾

또한 한설야는 1932년에 다음과 같이 중국의 현실을 분석했다. 1) 만주사변 이후 남경정부는 더 이상 ‘양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연맹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방책을 찾는 것 같지만 제국주의 열강은 대공황 이후 중국을 재분할하려 힘쓰고 있다, 2) 열강들은 기세를 몰아 북쪽의 소련으로 나아가갈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3) 장개석은 독재적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농민의 대규모 아사(餓死) 등 정치적 위기로 비화하고 있다, 4) 홍군과 중화소비에트의 위세가 커지는 것은 남경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⁹⁰⁾

이상 네 가지는 『조선지광』 막바지에 중국혁명의 방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는지 잘 보여준다. 대공황이라는 세계적 위기를 배경으로 중국혁명은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중국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사회주의

87) 주요한, 「중국문제 여시관」, 『조선지광』 93, 1930. 11.

88) 최상해, 「태평양문제의 일고찰: 중국혁명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91쪽.

89) 한설야, 「남경국민회의의 정체」, 『조선지광』 96, 1931. 5, 14쪽.

90) 한설야, 「남경국민정부와 蔣張의 귀추」, 『조선지광』 100, 1932. 2.

국가 소련을 방어하기 위하여, 노농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중국공산당과 홍군이 중심이 되어 제국주의 하수인이 된 국민정부와 투쟁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소련과 중국공산당, 중국 민중이 함께 제국주의 열강과 남경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정식이 성립되며, 세계에 대한 진영론적 이해가 심화된 시기에 소련을 동반자로 삼아 계급적 원칙을 한껏 고양시키는 논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조선지광』의 마지막에 국제정세 가운데 그 동안 독자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던 소련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⁹¹⁾

『신계단』에서는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소련은 ‘사회주의 잡지’ 가운데 한층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프랑스와 소련의 불침략조약 전문을 게재하며 편집부의 일원인 필자는 “불란서는 격화하는 제국주의적 모순의 와중에서 비록 시간적으로나마 어느 부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에 부딪기어 반소××의 영도자인 그 본래의 ‘역사’적 임무와 현저히 외관을 달리하는 태도로써 소련을 대하게 되었고 소련은 그 불변하는 평화정책의 면목을 ××하는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함께 약여(躍如)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썼다.⁹²⁾ 그러나 이 기사도 조약 체결의 의미를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자세히 해설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193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잡지’의 국제정세 기사는 대부분 대공황, 소련, 파시즘이라는 키워드로 채워졌다. 다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차 위축되어갔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91) 안막, 「소련 5개년 계획의 세계사적 의의」, 『조선지광』 100, 1932. 2; RW, 「전후 자본주의 제3기의 제문제」. 한편 소련은 1932년 이후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개선해나갔다. 1934년 국제연맹에 가입하였고, 중동철도는 1935년에 만주국에 처분하였다. 노경덕, 「스탈린 외교를 바라보는 한 시각, 1927~1953」, 376~378쪽.

92) 편집부, 「(국제정세) 소불불침략조약의 성립」, 『신계단』 5, 1933. 2, 28쪽.

4. 맺음말

『조선지광』의 국제관계 기사 내용을 전반기(1925~1928)와 후반기(1929~1932)로 나눠 분석한 이 글은, 『조선지광』의 매체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고,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자의 국제정세 인식을 파악해보고자 한 결과물이다. 본문을 통해 밝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지광』 전반기의 국제관계 기사는 사회주의 성향의 김동혁을 편집인으로 양명, 김준연, 김영식 등 조공 당원이 집필했다. 이들은 세계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으로 이해하였으며 국제연맹의 결성으로부터 로카르노조약, 군축회의, 부전조약에 이르기까지 도달한 ‘허구적 평화’ 상태는 각국의 대립이 미봉된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이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이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대립이 가속화되는 한편 제국주의 열강은 일관되게 반소 고립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지광』은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중국의 국민혁명에 주목했다. 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전개된 국민혁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과 함께 국공합작 추진 단계에서 소련의 기여를 강조하는가 하면 국공합작 결렬의 원인이 소련과 공산당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국민혁명과 소련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혁명의 추진력이 중국 노동계급에 있다고 하면서 피압박대중 투쟁의 의미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국민혁명을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국민혁명을 통해 ‘중국 노동계급과 함께하는 계급적 국제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갔다.

『조선지광』 후반기에는 조공 탄압 사건 이후 김동혁이 편집 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필진은 문필가 집단이 중심이 되었다. 94호까지는 과거 사회운동 참가 경력이 있거나 신간회 본부 회보 편집위원으로 선임되

있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95호부터는 카프 계열이 포함된 ‘신진 사회주의자’가 자리를 차지했고 이들은 『조선지광』 후속인 『신계단』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후반기의 『조선지광』은 점차 제국주의 열강의 개별적인 대립도 중요하지만, 제국주의 열강 대 사회주의 국가 소련의 진영 간 대립이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자본주의 위기와 소련의 약진이 가져온 이해 방식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반기에도 중국혁명에 관심을 두었는데 남경정부가 제국주의 열강과 결탁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남경정부가 소련에 대한 중동철도 회수를 요청했을 때 남경정부의 변질을 공격하는가 하면, 소련의 중동철도 소유가 사회주의 국가의 자위권과 혁명의 전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금 중국문제를 계급적 입장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환기시키는 것이자 중국혁명과 소련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조선지광』에는 중국혁명이 노농계급의 해방과 소련의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관점이 제기되었고, 『신계단』 창간 이후에는 국제관계 가운데 소련에 대한 기사가 많아졌다.

『조선지광』은 경영상의 문제와 필진의 변화 등으로 일관된 논지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자본주의적 상품 판매 경쟁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이 평화를 해치는 근본문제라고 상정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반소 정책을 딛고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지원하던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하며, 세계 노농계급의 해방과 계급적 국제연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조의 수위는 정세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달라졌다. 중국의 혁명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반기에는 소련의 기여와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계급운동이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대공황의 영향을 받은 후반기에는 소련과 중국의 중동철도 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으로 보는 진영적 이해가 확고해졌다. 이에 따라 투쟁으로써 소련을 수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남경정부에 대한 철저한 투쟁이 노농계급의 임무로 강조되었다.

- 투고일: 2023.12.30. / 심사완료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19.
- 주제어: 『조선지광』, 국제정세, 중국혁명, 대공황, 중동철도, 소련

〈부표 1〉 『신계단』(1932~1933년) 수록 국제정세 관련 기사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1	1932.10	주기화	납경정부의 사회적 기초
		편집부	(자료란) 화학공업과 전시 역할, 각국의 철 철강 석탄, 각국 중공업 생산지수 비교, 수자로 본 중국, 싸비에 트동맹의 공업 생산, 세계 공업 생산액의 감퇴, 최근의 영미 기업의 불황
2	1932.11	한설야	소련 석유의 세계적 진출
		현하린 역	위기하의 불란서
		AP생	(국제정세) 후버 경기의 轉落과 랭카샤의 총파업 현상
		편집부	(자료란) 국제농업문제연구소
3	1932.12	한설야	농업공황과 과잉생산
		편집부	(국제정세) 미국 정변과 국제적 영향, 西藏과 영국의 신정책, 몽고와 소련의 남진,
		편집부	싸-베트 사정 一束
		一記者	(자료란) 맑스 앵겔쓰 레닌 연구소와 그 활동, 국제연구소 소개 其二
4	1933.1	유해송	1933년의 세계 전망
		만년설	경제적으로 본 일미관계
5	1933.2	베.크로토콥	「인푸레-손」과 「圓」의 위기
		최일숙 역	세계 주요 諸國 인프레이손의 파도
		만년설	일본경제현실체의 분석
		최진원	자본주의 열강의 대립과 국제빨럭 경제문제: 관세전을 통하여 본 그 현상
		편집부	(국제정세) 蘇佛불침략조약의 성립, 蘇中 양국의 국교회복
		남만희	팻시즘 노동조합의 정체: 독일의 예를 들어 그 일단을 소개함
6	1933.3	입화	세계경제공황의 발전과 노동자계급의 신상태
		편집부	(국제정세) 日蘇불가침조약을 중심으로, 5개년계획과 군사문제 스타-린 연설을 중심으로, 國聯과 일본 탈퇴의 위임통치 문제
		서강백	자본주의적 계획경제 비판
		鐵夫	세계실업자운동

호	발행연월	필자명	기사명
7	1933.4	최일숙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정책
		서강백	공황리의 세계와 우익적 활로의 해부
		윌트콕스키	전쟁과 개량주의 노동조합
8	1933.5	홍수진	일본의 국련 탈퇴와 열하사건의 의의
		임화	세계공황과 자본주의 諸國의 예산위기
		청원(이청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동태(생략)
		이청원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공황
		카가노베티치	농업집단화의 발전과 싸벳트국방의 공고화
		편집부	(국제정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외교문제, 齋藤내각의 挂冠說과 최근의 일본 정세, 日印통상조약 폐기와 일영관계, 세계경제회의와 그 戲畫
9	1933.6	홍수진	군축 戰債를 중심으로 한 루즈벨트의 평화성명
		이청원	세계경제공황과 국제경제회의
		A.이바노프	해전의 군사기술상으로 본 군축협정과 열강의 대립
		소인	남미를 중심으로 한 영미의 알력
		임화	(시평) 영인 기사 중심의 싸베트음모의 의의
		임화	(시평) 중국에 있어서의 장개석 지배의 새로운 동요
		편집부	국제뉴-스(싸동맹 중국 구미) (생략)
10	1933.7	안병주	(시평) 나치스의 발광과 제3제국의 자멸책

❖ 참고문헌

『조선지광』.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김용구, 『세계외교사(하) 1차대전에서 냉전질서의 형성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박노자, 『조선 사회주의자 열전』, 나무연필, 2021.

캐빈 맥더모트·제레미 애그뉴, 『코민테른: 레닌에서 스탈린까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서해문집, 2009.

홍정완·전상숙, 『함께 움직이는 거울, '아시아': 근현대 한국의 '아시아' 인식의 궤적』, 신서원, 2018.

김명구, 「안재홍의 1920년대 구미 정세 인식」, 『대구사학』 131, 대구사학회, 2018.

김문중,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향토서울』 7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노경덕, 「스탈린 외교를 바라보는 한 시각, 1927~1953」, 『역사비평』 121, 역사문제연구소, 2017.

신용균, 「1930년 전후 이여성의 약소민족운동 연구와 민족해방운동론」, 『사총』 7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2.

윤효정, 「조선일보의 중국 국공합작 지지 담론과 신간회 창립 지원」, 『역사연구』 34, 역사학연구소, 2018.

장 신, 「『주보 조선지광』의 발굴과 몇 가지 문제」,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2011.

장 신, 「1926~1932년간 월간 『朝鮮之光』의 편집과 경영」, 『대동문화연구』 12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조형열, 「1930년대 전반기 경성제대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의 학술문화운동」,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 국문요약

『조선지광』에 투영된 사회주의자의 국제정세 인식

조 형 열

『조선지광』의 국제관계 기사 내용을 전반기(1925~1928)와 후반기(1929~1932)로 나눠 국제관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이 글은, 『조선지광』의 매체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고,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자의 국제정세 인식을 파악해본 결과물이다. 『조선지광』은 경영상의 문제와 필진의 변화 등으로 일관된 논지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자본주의적 상품 판매 경쟁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이 평화를 해치는 근본문제라고 상정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반소 정책을 딛고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지원하던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하며, 세계 노동계급의 해방과 계급적 국제연대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조의 수위는 정세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조금씩 달라졌다. 중국의 혁명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전반기에는 소련의 기여와 피압박대중의 투쟁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계급운동이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대공황의 영향을 받은 후반기에는 『신계단』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필진이 등장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중동철도 분쟁을 계기로 하여 세계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으로 보는 진영적 이해가 확고해졌다. 이에 따라 투쟁으로써 소련을 수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남경정부에 대한 철저한 투쟁이 노동계급의 임무로 강조되었다.

✻ Abstract

Socialist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flected in *Joseonjigwang*

Cho, Hyong Yerl

This article, which analyzes the contents of articl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by dividing *Joseonjigwang* (Light of Joseon) into the first half (1925~1928) and the second half (1929~1932), contributes to identifying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Joseonjigwang*, and results from understanding socialists'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anging from the mid-1920s to the early 1930s. *Joseonjigwang* had difficulties maintaining a consistent argument due to management problems and changes in writing staff, but it assumed that capitalist competition in selling products was the cause of the war and that the conflict between imperialist powers was the fundamental problem that undermined peace. It affirmed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which overcame the anti-Soviet policies of capitalist countries and supported the struggles of the oppressed masses, and hoped for the liberation of the world's worker-peasant class and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class.

However, the level of such an argument changed little by little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changes and Comintern (a.k.a, communist International) policies. If we focus on China's revolutionary movement, in the first half, it placed importance on the contribu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truggles of the oppressed masses while trying to emphasize that the class movement should take the lead in the National United Front Movement. In the latter half, affected by the Great Depression, a new group of writers who segued

into *Shingyedon* (New Stairs) emerged, and the Middle East railway disput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hina solidified the camp-based understanding of the world, which views the world as a conflict between the capitalist system and the socialist system. Accordingly, the awareness that the Soviet Union must be defended through struggle was strengthened, and thorough struggle against the Nanjing government was emphasized as the duty of the worker-peasant class.

Key Words: *Joseonjigwang* international situation, Chinese revolution, Great Depression, Middle East railway, Soviet Union